

50인이나 전전(轉轉)하여 전해진 가르침을 들은 50번째의 사람이 얻는 공덕을 왜 특별히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법화경>의 위대함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그것은 이리하다.

누구라도 좋다.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듣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면 그 설법장소를 떠난 후에 어디서든지 이 <법화경>을 설해 가르친다. 그러면 <법화경>의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도 똑같이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하여 또 다음 사람에게 설해 가르친다. 이리하여 다음에서 다음으로 마치 등불을 이어 켜듯이 이 <법화경>을 설해 하나 하나가 생활을 즐기게 해주는 것을 모두 주었다고 하자. 이를테면 이 세상에 가득한 만큼의 금과 은 내지 산호나 호박 등의 보석을 비롯하여 코끼리나 말, 팔각(藥物) 그리고 일곱 가지 보배로 된 궁전과 누각 등을 그 하나 하나의 중생에게 빠짐없이 베풀어주기를 80년 동안이나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그대들은 또, "부처는 6신통(六神通)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천신(天神) 신선(神仙) 아수라(阿修羅) 대력귀(大力鬼)도 신통을 부러니 마땅히 부처이여야 하지 않겠느냐? 도 배우는 이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예컨대 야수라가 제석천과 싸워서 지면 8만 4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연(蓮) 뿌리에 있는 실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니 어찌 성스럽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신통(神通)은 모두가 업 짓는 신통이요 무엇에 의지한 신통이다. 부처의 6신통이란 그렇지 않아서, 색깔에 접해서는 색에 속지 않고, 소리에 접해서는 소리에 속지 않고, 냄새에 접해서는 냄새에 속지 않고, 맛에 접해서는 맛에 속지 않고, 촉감에 접해서는 촉감에 속지 않고, 법(法)에 접해서는 법에 속지 않는 것이다. 색 성 향 미 촉 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아는 까닭에, 이 의지할 없는 도인(道人)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오온(五蘊)으로 된 부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땅 위를 걷는 신통을 나타낸다.

그대들은 또, "부처는 6신통(六神通)을 갖추고 있어서 불가사의하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모든 천신(天神) 신선(神仙) 아수라(阿修羅) 대력귀(大力鬼)도 신통을 부러니 마땅히 부처이여야 하지 않겠느냐? 도 배우는 이들이여! 착각하지 말라. 예컨대 야수라가 제석천과 싸워서 지면 8만 4천의 권속을 거느리고 연(蓮) 뿌리에 있는 실의 구멍 속으로 들어가 숨는다고 하니 어찌 성스럽다 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신통(神通)은 모두가 업 짓는 신통이요 무엇에 의지한 신통이다. 부처의 6신통이란 그렇지 않아서, 색깔에 접해서는 색에 속지 않고, 소리에 접해서는 소리에 속지 않고, 냄새에 접해서는 냄새에 속지 않고, 맛에 접해서는 맛에 속지 않고, 촉감에 접해서는 촉감에 속지 않고, 법(法)에 접해서는 법에 속지 않는 것이다. 색 성 향 미 촉 법의 6가지 경계가 모두 헛된 모습임을 아는 까닭에, 이 의지할 없는 도인(道人)은 매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오온(五蘊)으로 된 부실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땅 위를 걷는 신통을 나타낸다.

마음은 본래 신령스럽게 통하는 것으로

나는 중생이 바라는 대로 생활을 즐기게 위한 물질을 베풀어 왔다. 그러나 이 중생들은 차츰 나이가 들어 늙어가서 몸은 쇠약해지고 머리는 하얗게 되었으며 얼굴은 주름투성이가 되었고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불법에 의해 이 사람들을 가르쳐 인도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 만큼인가 하면 백분 또는 1천 분이 아닌 백천만분의 1, 뿐만 아니라 계산에 의해서도 비유에 의해서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아득하여 미치지 못한다. 이것이 '50전전 수회공덕'의 크기이다. 전하고 전해서 50번째의 사람이 얻는 수회공덕이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이다. 법에 대한 넓은 지식도 없었으면 아니라 깊은 신앙심도 가지지 않았으며 남에게 설한 경험도 없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내용은 '그가 들은 바와 같이' 틀림없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의 감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사람에서 세 번째 사람, 세 번째 사람에서 네 번째 사람으로, 이렇게 가던 갈수록 얽어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여 50인 째에 도달했다고 하면 보통의 가르침이라면 거의 감명도 무엇도 없어서 버려서 들은 사람은 '아, 그런가' 하고 치워 버릴 것이 뻔한 일이다. 그러나 <법화경>의 경우는 그것이 다른 점이다. 가르침의 내용이 한없이 위대하기 때문에 내용이 틀림없이 전해지는 한, 50인 째에 이르러도 감명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최초의 사람보다 조금씩 얽어지긴 하겠지만 그 얽어진 감명마저도 커다란 공덕이 깃들여 있는 것이다. 이 '50전전'에는 이러한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공덕에 대해 주의해야 할 것은 <법화경>에서는 여러 가지의 공덕을 나타내는데 매우 상징적인, 즉 형태가 없는 것을 어떤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에 의해서 표현하고 있으므로 어구의 표면적인 의미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정신을 찾아 이해하여야 한다. 불교에는 "말을 보라고 손으로 말을 가리켰더니 보라는 말은 보지 않고 왜 손가락을 보느냐?"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 두고 쓰는 말이다. 그러므로 어구의 저쪽에 있는 정신을 보지 않는다면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 다음의 <법사공덕품 제19>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같은 주의를 해야 한다.

###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㉑ 수회공덕품 제18

50전전



## 아무리 큰 재물 보시를 해 봐야 50번째 수회 공덕에도 못미쳐

이번에는 모든 중생에게 법을 설해 가르쳐서 이 사람들을 각각 나름대로의 깨달음으로 인도했다. 즉 재보시뿐만 아니라 법보시도 했다. 그 큰 시주의 재보시 및 법보시에 의해서 얻은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지만, 그 큰 시주가 얻는 공덕도 <법화경>의 단 한 시구(一偈)를 듣고 마음에서부터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갖는 공덕에는 도저히 미치지 못한다. 그것이 열

므로 맨 처음의 사람이 얻는 수회에 대한 공덕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뜻이다. 즉 최초의 사람은 법화에서 직접 설법을 들었으므로 훌륭하게 가르침에 통달할 수 있었다. 설득력이 있는 지도자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감격은 매우 강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가르침을 들었을 뿐인 사람



###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㉑

거부할 수 없는 것

서 어디에도 막히거나 머물지 않는다. 막히고 머무는 것은 오온이라는 모양과 이름에 막히고 머무는 것이다. 바로 지금 이름과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모든 이름과 모양이 빠짐없이 한결같은 마음이어서, 생각이나 말에 장애받지 않는다.

예컨대 지금 손을 내밀어 찾잔을 잡고 차를 한 잔 마신다고 하자. 이제 차를 마시고 있는 나를 찾아보자. 우선 차와 찾잔이 먼저 제외될 것이다. 다음은 찾잔을 잡은 손과 손을 움직이는 팔과 차를 마시는 입이 있는데, 이것들은 모두 '나'의 육체라고 불리는 것의 일부뿐이다. 그런데 손

## 변화하지 않는 '그 무엇' 찾아야

지 않는 길을 시험삼아 함께 가보자. 그것은 모든 헛된 거품을 제거한 진실한 나 자신을 찾는 길이다. 이 길은 바로 지금 '나'로서 활동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의심할 수 없는 것만을 남기고, 생겨났다 사라지거나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모든 가변적인 요소들을 제외시켜 가는 방법을 통하여 탐구해 볼 수 있다.

과 팔과 입은 '나'가 사용하는 도구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들이 떨어져 분리된다고 하여 '나'가 떨어져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손과 팔과 입과 같은 가변적인 육체는 제외되어야 한다. 느낌과 욕망과 생각과 의식은 어떤가? 차의 향기가 코에 느껴지고 찾잔의 촉감이 손에 느껴진다. 그러나 이런 느낌들은 조금 전에는 없었고 조금 뒤에 차를 다 마시고 나면 없어질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다. 차를 마시고 싶다고 하는 욕망과, 녹차를 한 잔 마셔야겠다고 하는 생각도 마찬가지로 가변적이다. '나는 지금 차를 마시고 있다'는 의식 역시 한 순간도 머물지 않고 흘러가며 변화하고 있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도대체 무엇이 남아서 '나'라는 노릇을 하고 있는가? 손, 팔, 입은 제외하더라도 손, 팔, 입과 함께 제외될 수 없는 무엇을 찾아야 하고, 느낌과 욕망과 생각과 의식은 가변적이지만 이들과 함께 하면서도 가변적이지 않은 무엇을 찾아야 한다. 그 무엇이 바로 지금 여기에 의심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이 나타나 있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법외 안내  
부산 무심선원-매주 수, 토요일,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첫째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 011-9520-0054(이정화) http://www.mindfree.net/

##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 흥내내기와 야호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장치인 '유기EL'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치는 1897년 독일의 K.F. 브라운이 전기신호를 전자빔의 작용에 의해 영상이나 문자 등의 광학적 인 상으로 변환하여 표시하는 브라운관(특수진공관)을 발명하면서 유래한다. 그 후 브라운관은 텔레비전의 수상관, 컴퓨터의 모니터 등에 널리 이용돼 왔다. 그러나 최근 두께가 얇고 전력 소모량이 적은 초박막 트랜지스터 액정 표시장치(TFT-LCD)와 대형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PDP) TV의 사용이 보편화되기도 전에, 한일 업체들은 두께와 무게를 현재의 3분의 1수준으로 줄

릴'란 화두가 <종용록(從容錄)> 제13칙에 있다. 임제 선사가 세상을 돌 무렵, 삼성이 원주(主)로 있었는데, 선사가 법상에 올라 가로되 '내가 떠난 뒤에 나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이 소멸하지 않게 하라!' 하니 삼성이 아뢰되 '어찌 감히 화상의 정법안장을 소멸하겠습니까?' 하니, 이에 선사가 가로되 '갑자기 누군가가 물으면 그대는 무엇이라 하겠는가?' 하니, 이에 삼성이 '할례!' 을 하니 선사가 가로되, 나의 정법안장이 저 눈먼 당나귀에게서 소멸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으리오?' 하였

다. 사실 옛날에는 제자들을 일깨우기 위한 수단으로 임제 스님의 책소리

『略』! 덕산 스님의 몽둥이 찰질! 등의 충격 요법도 있었으나 이런 수단들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다부질없는 것이며 또한 꾸준히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는 역시 필요 없는 것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간화선 전통의 계승자였던 무문혜계 선사도 이점을 간파하고 <무문관> 48칙 편찬시 '할'에 관련된 공안들을 철저히 배제했다고 판단된다. 이제, 흑백 텔레비전을 아루도 거



그림 · 문병성

## '야호선' 식 가르침 아직도 많아 시대에 맞는 참선지도법 나와야

일 수 있고 소비전력이 적으며, 액정에 비해 배 이상 빠른 동영상 재생 능력을 가진 차세대 유기EL 제품의 양산을 놓고 치열하게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브라운관의 발명 이후 본래의 목적은 같으나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면서도 영상 정보를 좀더 생생하게 구현하기 위해 개발에 개발을 거듭해 왔다.

들떠보지도 않듯이, '할'을 이용한 지도 방식도 일반 대중들에게는 선가에서 그저 관행적으로 하는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어 별로 신선한 충격을 주지도 못하고 있다. 선진국들이 국가의 사활을 걸고 새로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듯이 부디 제방의 선지식들이 온몸을 내던져 시대에 맞는 독창적인 새로운 학인 접두 방식을 끊임없이 개발하여 한국선종이 지구상에 널리 선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도 야호선(野狐禪: 참된 수행은 하지 않고 깨달음을 얻은 듯한 태도로 옛어른들의 흥내를 내며 남을 속이는 사이버 선을 뜻함) 방식이 적지 않게 쓰이고 있는 선가(禪家)의 지도 방식도 이제는 현대인에 맞게 다시 재고할 때라 판단된다. 야호선과 관련하여 음미해볼 임제해탈(臨濟海脫

임제의 책소리! 다만 귀머거리만 들었으며, 덕산의 몽둥이 찰질! 때린 놈만 통증이 풀수에 사무쳤네.

서강대 물리학과 yypark@ccs.sogang.ac.kr

## 감사의 말씀

## 종단 명칭·휘장 공모

## 알리는 말씀

삼보 귀의하옵니다. 겨울의 문턱에 접어들어 일기 고르지 못한 가운데 법체 평안하심을 서원합니다. 지난 10월 25일 본종 국태민안 평화통일기원 대법회에 함께 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큰스님들과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한국불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처한 오막막세의 말뚝시대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정법안장과 불법홍포에 함께 손을 모아 불국정토 이루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하면서 큰스님들과 함께하신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님들의 늘 평안하심을 서원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큰 절 올러야 하오나 여의치 못해 지면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매우 송구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자리를 빛내 주신 큰스님과 내외귀빈 그리고 불자 여러분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보귀의하옵고, 본종은 불기2546(2002)년 10월 25일 창종기념 대법회를 봉행하였으나 다 종단과 유사한 증명으로 인하여 불자들의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이에 한국불교 율종의 법통을 이어 법손만대에 유전될 종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뜻을 품은 종단명칭과 휘장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 공모 및 심의 ■

- 공모내역 : 종단명칭 및 휘장
- 공모기간 : 불기 2546(2002)년 11월 30일까지
- 시 상 : 1백만원
- 심 의 : 본종 종명 및 휘장 심의위원회
- 접 수 처 :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  
135-88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02)511-2026~7 팩스(02)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는 2002년 10월25일 종단을 창종하면서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라는 증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다수 국민들과 불자들이 대한불교조계종과 혼돈을 초래할 수 있다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의견을 받아들여 오는 2002년 11월30일까지 증명을 변경할 것을 대한불교조계종과 합의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은 사부대중이 있다면 혼돈이 없도록 알려드립니다.

불기 2546(2002)년 11월 12일

삼화불교대학  
학장 혜인 합장

불기 2546(2002)년 11월 12일

불기 2546(2002)년 11월 12일

삼화불교대학 학장 혜인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삼화불교 총무원